

##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 현장과 함께 맞을 올린다

-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최종회의 개최, 노·사·청년단체와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논의
- 향후 공개토론회,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발표 예정

산업전환의 거센 파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삶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노·사와 청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5월 15일(금) 14시, 서울비즈센터 1호점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관련 현장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1기 포럼('25.11월~'26.3월)에서는 업종별 현황 분석 등 기초자료를 축적한 데 이어, 2기 포럼('26.4월~5월)에서는 일자리전망, 고용안전망, 기업지원, 직업훈련, 사회적대화 등 5개 전문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종회의로 전문가 포럼에서 마련한 전문가 보고서안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검토자료를 함께 논의하고, 현장 노사단체 및 청년단체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산업전환의 속도와 노동시장의 준비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며, “시설·설비투자에 맞춰 필요한 인재가 제때 양성되지 않으면, 전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산업전환의 전체 주기에 맞춰 우수한 인재가 적기에 일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갖춰 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전환의 시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노·사·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 붙임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개요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4-202-7220)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박득영 (044-202-7412) 노선영 (044-202-7407)



□ **일시·장소:** '26. 5. 15.(금) 14:00~16:30 / 서울비즈센터 1호점\*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7

□ **참석**

- (좌장)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 (전문가) 노동·산업 등 분야 전문가 17인
- (노사단체 등) ▲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 2인  
 ▲ <경영계>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각 1인  
 ▲ <기 타> 청년단체 1인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

**<세부일정>**

\* 모두 말씀까지만 공개

시간	구분	세부내용	비고
14:00~14:02	개회	모두 말씀	고용정책실장 좌장
14:02~14:27	[1부] 발제	[전문가] 전문가 보고서안 발표	좌장
14:27~14:40		[노동부] 검토자료 발표	담당 과장
14:40~15:10		[지정토론] 노사단체 및 청년(6인)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경총 →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 → 청년	사회: 좌장
15:10~15:20	휴식		
15:20~16:20	[2부] 자유토론	참석자 자유발언	
16:20~16:30	[폐회]	마무리 말씀 및 향후계획 안내	좌장